



정책현장탐방

• 희망을 실현하는 영동군 여성경력발전소 :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희망을 실현하는 영동군 여성경력발전소 :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09년 전국 72개소로 출발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6년 5월 말 기준 147개소로 확대되었다¹⁾. 지역 산업특성과 여성인력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유형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 유형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14년 5월 ~ 7월) 및 시범 운영되었고('14년 7월~), 2015년 5월 일반형·경력개발형·농어촌형으로 개편되었다²⁾. 현재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 5개소로 영동, 영월, 부여, 홍성, 완주 등이다.

젠더리뷰 여름호 정책현장탐방은 2009년 지정 이래 지금까지 영동지역 여성 역량강화와 취·창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영동새로일하기센터를 취재하였다. 2016년 6월 27일 영동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에서 정재호 센터장, 김은하 취·창업지원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³⁾.



정재호 센터장

남성으로서 여성의 경력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남성으로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을 맡게 된 점은 영동지역 내 여성인력 발굴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농촌지역 특성 상 유리천장이 남아있어 여성 리더십 개발이 부족한 측면과 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남성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

다. 농촌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현장경험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현장사업 운영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가 효과적 자원이 될 것이라 판단해서 센터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강점과 약점이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일하기 센터가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 유지나 기관 협조를 통해 사업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고려할때, 지역 기업 대부분이 남성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남성 센터장의 역할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여성가족부, “정책안내-여성새로일하기센터”,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2_02_05.jsp에서 2016년 6월 24일 인출.

2)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16), 「201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3) 전반적인 인터뷰는 정재호 센터장과 진행하였고, 김은하 취창업지원팀장의 답변은 “김은하 팀장”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4) 영동통계연보(2014), [연령별(5세계급)및성별인구] 자료 참조.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에서 2016년 6월 28일 인출.



다만, 교육 참여자와의 소통 · 공감부분에서 성별이 다른 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고 센터를 운영해야 하죠. 2009년 이후 센터장 공개공모가 2번 있었으나 아직은 참여자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동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센터의 운영방식이나 유형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9년 개소 당시 지역 여성과 산업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영동만의 구체적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장 특화사업 발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작용했죠. 그래서 개소 이후 지금까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조직구성과 현장밀착형 지역 특화사업 위주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기업과의 협력과 조직 내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해 센터 조직을 행정과 취 · 창업지원팀, 상담교육팀, 사후관리지원팀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센터업무의 특성 상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업무협약이 많고, 기업 문화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센터 직원에게도 업무에 합당한 직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조직 세분화를 통해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기업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유형 전환 이전부터 농촌지역 특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의 경우, 기업체 수가 많지 않아 취업만큼이나 창업에 방점을 둔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2009년 이후 귀농 · 귀촌인구의 증가에 따라 농촌지역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유입이 많아져 이들의 농촌 적응과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센터는 「농산물 온라인 장터 창업 및 실무자 양성」 과정이나 「영동 와인 & 푸드 마스터 양성」 과정 등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새로일하기센터 유형 중 농어촌형입니다. 농촌지역으로서 영동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 및 특이점이 있을까요?

영동은 전형적인 농촌기반사회로 50대 이상 노령인구가 2013년 기준 전체 인구 중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⁴⁾. 경력단절여성 역시 20-30대가 아닌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특성 상 경력단절여성으로 분류되는 30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인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농한기에는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일자리에 참여하지만, 농번기에는 농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간 수익은 실제 기업체에 전일제 근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즉, 경력단절

여성들이 실업으로 잡히더라도 실제로는 실업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은 편이죠. 이들은 기업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기보다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일자리를 선호하고, 창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전일제 일자리 발굴과 함께 도시지역에 비해 기술습득을 통한 창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와인마스터 교육 역시 이러한 지역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입니다. 와인마스터 교육은 영동군 와이너리 양성계획에 맞추어 포도생산부터 와인생산, 와인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푸드 카페 설립까지 연계됩니다. 즉, 생산과 판매, 이를 위한 서비스까지 가능한 6차 산업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영동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타 기관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으며, 특화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동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모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신규 사업 유치에 따른 직종개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창업프로그램 기획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례로, 아동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을 당시, 도시와 달리 영동 내에는 새로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상담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아동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상담사를 육성했고, 이들이 1-2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드림스타트 사업 등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개교 시 입주하게 될 남성대 골프장 내 캐디 구인수요에 대비해 개교 2년 전부터 캐디양성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성대 골프장과 연계해 2011년~2013년 간 14명의 캐디가 취업하였습니다. 또 지역기업에서 실무지식을 겸비한 사무원에 대한 구인요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업체 실무자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멀티오피스 사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와인 & 푸드마스터 양성과정, 전통놀이지도사, 골프장 캐디 양성사업 등 영동에서 개발한 농촌지역 맞춤형 사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표 1〉 영동새로일하기센터 지역기반 직업훈련 과정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인원
1	(일반) 멀티 오피스 사무원 양성	160	20
2	(농촌형)농산물 온라인 장터 창업 및 실무자 양성	180	20
3	(농촌형)영동와인&푸드 마스터 양성	180	20
4	새일역량교육(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	40	15
계	총 4 개 과정	560	75

출처 : 영동새로일하기센터(www.ywww.or.kr)에서 2016년 6월 28일 인출.



교육대상자의 취업자원을 위해 동행면접, 새일인턴제,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시는데요, 이 중 참여자의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김은하 취 · 창업지원팀장

새일인턴제가 센터를 이용해 취업하는 여성분들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홍보와 전산관련 직업교육 등 인턴제를 거친 취업자의 경우, 직업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지식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취업하게 되므로, 기업에서도 능력을 겸비한 여성인력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김은하 취 · 창업지원팀장).

영동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전인적 과정입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전인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참가자들이 집단상담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 직업의식고취 및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후 직업교육프로그램과 인턴제를 거쳐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개인별 맞춤으로 전인적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농 · 귀촌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운영해온 「새일역량교육(사회적경제 조직 창업)」과정입니다⁵⁾. 귀농 · 귀촌인력이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행면접



온라인 장터 창업 과정

⁵⁾ 새일역량교육(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은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취·창업에 성공한 여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또 취·창업 성공 여성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 입니까?

사무회계, 사회복지, 보건의료, 미용음식, 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관련 직종 취업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내 노령인구를 위한 지원기관이 많고, 사회복지 분야가 전문·사무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0대 이상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만으로 취업은 힘들기 때문에 문서작성능력 등 실무능력이 약한 중장년층을 위해 실제 실무자가 강의하는 「사회복지행정실무자」 과정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여성들이 조직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몇 명이 취업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2〉 영동새로일하기센터 취업연계 실적

구분	소계	사무, 회계	건설, 기계	영업, 판매	교육, 연구	미용, 음식	전기, 전자	보건 의료	청소, 가사 도우미	사회, 복지	기타
2013	271	64	1	16	29	57	2	35	11	35	21
2014	305	86	22	25	23	48	0	50	7	26	18
2015	266	59	9	17	20	28	1	34	10	36	52

출처 : e새일시스템(<https://saeil.mogef.go.kr>)에서 2016년 6월 28일 인출.

경력단절 여성 채용 및 여성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해 새로일하기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라고 합니다. 영동새로일하기센터의 일촌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협력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속적인 전화상담을 통한 고용유지, 기업체에 필요한 지원제도 안내를 안내하고, 기업체 간담회, 일자리 협력망 등을 통해 업체, 인사담당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장 인식개선에 필요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체 환경 개선 지원금 지원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업체와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7년간의 협약을 통해 기업체가 “새로일하기 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인력수급 방법”이라고 인식할 만큼 신뢰를 구축하였고, 이러한 신뢰를 일촌기업이라는 형식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외에 경력단절 여성 스스로 취·창업 성공 및 경력유지를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전인적 마인드와 직업의식,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의 경력단절여성은 도시의 경력단절여성보다 치열한 직업의식이나 긴장감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 기간을 경력단절기간으로 보았을 때, 농어촌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이 도시여성에 비해 길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경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초적 과정뿐 아니라 한 단계 심화된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력공백 기간을 본인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창업 성공 여성 중 기억에 남는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가요?

식당만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그만두시고, 골프장 캐디로 이직하신 40대 후반의 여성분이 기억에 납니다. 아직 보수적 시각이 남아있는 농촌에서 골프장 캐디직종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이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직종인 캐디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어려운 골프용어 등 영어공부를 하시고, 주변의 선입견에 맞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농촌의 중장년층 여성 평균소득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계시고, 다른 골프장으로 스카웃되실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김은하 취·창업지원팀장).

또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자연생태지도사가 되신 분들도 기억에 납니다. 「자연생태지도사」 과정은 청정 지역자산활용과 지역 여성취업을 목적으로 추진된 교육으로, 2013년 영동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녹색직종 개발 및 교육형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⁶⁾. 「자연생태지도사와 함께하는 영동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 배출된 중장년 여성 6명이 용두공원 등지에서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아시아뉴스통신(2014년 7월 3일), "영동군, 자연생태지도사 여성일자리로 호응",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679787>에서 2016년 6월 28일 인출.

향후 지역 여성의 취·창업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센터의 장기적 비전 및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구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6차 산업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시스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계속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경력단절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가족을 따라 귀촌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단절이 된 고학력 여성들이 농촌 지역의 맞춤형 취업지원,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사회복지, 교육)의 직종개발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분야 취·창업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선호가 높은 분야로 여성인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셋째, 지역 산업구도가 1차 산업에서 2차 제조업, 6차 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여성진출 확대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생산품 가공산업 및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한 6차 산업 직종 발굴 및 창업활성화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여성의 경력개발은 인력발굴 및 직업의식 고취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6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2차 산업이 제대로 기능해야 하고 이후 3차 산업과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즉, 농촌형 새로일하기센터는 개인과 산업 모든 부분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여성인력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